

제 3 교시

영어 영역

출수형

[빠른 정답]

문제	31	32	33	34
정답	①	④	③	②
문제	36	37	38	39
정답	②	④	③	③

31. ①

[지문 해석] 인간 심리학의 한 가지 흥미로운 측면은 특히 자기 인식에 관련될 때, 외부의 제안에 매우 민감하다는 점입니다. 한 고전적인 연구를 생각해 봅시다. 이 연구에서 한 집단의 주택 소유자들은 그들이 동네에서 가장 관대하고 공동체 의식이 강한 사람들 중 하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몇 주 후, 바로 이 주택 소유자들은 자신들의 앞마당에 크고 보기 흉한 ‘안전 운전’ 표지판을 설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많은 수가 그 요청에 동의했는데, 이는 사전에 그런 칭찬을 듣지 않았던 통제 집단보다 훨씬 더 많은 수였습니다. 개인이 자신에게 부여된 꼬리표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이 현상은 사회적 기대의 심오한 힘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가 반드시 뿌리 깊은 개인적 확신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에 맞춰 자신의 행동을 정렬하려는 심리적 끌림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종종 받아들인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선지 해설]

- ① **social expectations** (사회적 기대): **정답**입니다. 지문에서는 ‘관대하고 공동체 의식이 강한 사람’이라는 외부의 긍정적인 평가(꼬리표)가 일종의 사회적 기대로 작용하여, 그에 부응하기 위해 행동(표지판 설치)하게 되는 현상을 설명합니다. 특히 마지막 문장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에 맞춰 자신의 행동을 정렬하려는 심리적 끌림’이라는 표현은 ‘사회적 기대’와 일치합니다.
- ② **financial rewards** (금전적 보상): 지문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므로 명백한 오답입니다.
- ③ **innate tendencies** (내재적 성향): **매력적인 오답**입니다. 주택 소유자들이 결과적으로 ‘관대한’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이 행동이 그들의 타고난, 즉 ‘내재적 성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문의 핵심은 이러한 행동의 원인이 선천적 성향이 아니라, 외부에서 부여된 ‘꼬리표’라는 후천적 요인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지문에서 이러한 행동의 원인은 ‘뿌리 깊은 개인적 확신(deep-seated personal conviction)’ 때문이 아니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정답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④ **creative expressions** (창의적 표현): 표지판을 설치하는 행위는 창의성과는 거리가 먼, 주어진 기대에 순응하는 행동이므로 지문의 내용과 관련성이 없어 오답입니다.
- ⑤ **competitive pressures** (경쟁적 압력): 지문에서는 다른 이웃과의 경쟁 심리나 압박감에 대한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지문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므로 명백한 오답입니다.

32. ④

[지문 해석] 디지털 시대에 우리는 스스로를 위한 복잡한 역설을 구축해 왔습니다. 전례 없는 수준의 연결을 촉진하기 위해 설계된 바로 그 기술들이 많은 경우 정반대의 결과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이상화된 자아를 선별하도록 조장하여, 우리 삶의 평범하고, 어렵고, 보기 좋지 않은 측면들은 조심스럽게 생략한 채 기쁨, 성공, 모험의 순간들만 세심하게 선택하고 공유하게 합니다. 그 결과는 다른 모든 사람의 삶이 끊임 없는 성공 서사처럼 보이는 하이라이트 영상들의 집합적인 갤러리입니다. 우리의 지저분하고 편집되지 않은 현실을 이러한 잘 다듬어진 디지털 외관과 비교할 때, 부적절함과 고립감은 쉽게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타인의 선별된 행복은 우리 자신의 힘겨움을 더욱 두드러지게 외롭게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는 디지털 망은 사실상 기만적인 정도로 얇은 연결의 구조를 엮을 뿐입니다.

[선지 해설]

- ① **enhances deep, meaningful relationships**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강화한다): 지문에서는 디지털 기술이 오히려 ‘고립감(isolation)’을 유발한다고 설명하므로, 지문의 내용과 반대되는 명백한 오답입니다.
- ② **creates an echo chamber of shared beliefs** (공유된 신념의 반향실을 만든다): **매력적인 오답**입니다. ‘반향실 효과(echo chamber)’는 소셜 미디어의 잘 알려진 문제점으로, 비슷한 생각만 접하며 편향성이 강화되는 현상입니다. 이 용어가 익숙하기에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 지문의 핵심은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이상적인 삶을 보며 느끼는 ‘감정적 고립’입니다. 따라서 지문의 주제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오답입니다.
- ③ **redefines authenticity for the modern era** (현대 시대의 진정성을 재정의한다): 지문에서는 이상화된 자아를 보여주는 행위를 진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고 그 부정적 결과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를 ‘진정성의 재정의’라는 표현으로 설명하는 것은 문맥상 맞지 않으므로 오답입니다.
- ④ **weaves a fabric of connection that is deceptively thin** (기만적인 정도로 얇은 연결의 구조를 엮는다): **정답**입니다. 겉으로는 ‘연결의 구조를 엮는다(weaves a fabric of connection)’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체는 ‘기만적인 정도로 얇다(deceptively thin)’는 것으로, 연결을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고립을 유발하는 피상적인 관계에 불과하다는 지문의 핵심 내용과 일치합니다.
- ⑤ **encourages users to seek real-world interaction** (사용자들이 현실 세계의 상호작용을 추구하도록 장려한다): 지문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므로 명백한 오답입니다.

33. ③

[지문 해석] 역사에 대한 지배적인 관점은 종종 역사를 암기하고 되뇌어야 할 과거 사실들의 정적이고 나눌 수 없는 기록 보관소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역사 연구의 역동적인 본질을 포착하지 못합니다. 역사는 단순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일어난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각 세대는 자신만의 고유한 도전과 질문에 직면하여, 새로운 렌즈를 통해 과거를 재검토합니다. 우리 조부모 세대에게는 의미 있었던 역사적 서사가 우리에게서는 불완전하거나 편향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는 사실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사회적 가치와 관심사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과거는 수동적으로 관찰되는 고정된 풍경이 아니라, 끊임없이 재구성되고 재해석되는 적응 가능한 자원입니다. 따라서 역사 연구는 근본적으로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입니다. 그것은 현재가 자신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지나간 시대와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는, 계속 진행 중인 의미 형성의 과정입니다.

[선지 해설]

- ① a precise science of chronological documentation (연대기적 기록의 정확한 과학): 매력적인 오답입니다. 이것은 지문 첫 부분에서 ‘지배적인 관점(prevaling view)’이라고 소개된 후, 글 전체를 통해 비판하고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글의 핵심은 역사가 단순한 ‘기록(documentation)’을 넘어선 ‘해석(interpretation)’의 학문이라는 것이므로, 글의 주제와 정반대되는 오답입니다.
- ② an unchanging testament to heroic achievements (영웅적 업적에 대한 불변의 증거): 지문에서는 ‘역사적 서사가 세대에 따라 변하며 (incomplete or biased to us)’, 과거는 ‘끊임없이 재구성되고 재해석된다(constantly reshaped and reinterpreted)’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문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므로 오답입니다.
- ③ a continuous dialogue between the present and the past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 정답입니다. 지문에서는 역사를 ‘새로운 렌즈를 통해 과거를 재검토(re-examines the past through new lens)’하고 ‘현재가 지나간 시대와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는(present actively engages with bygone eras)’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현재와 과거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끊임없는 대화’라는 표현과 일치합니다.
- ④ a fictional narrative detached from factual evidence (사실적 증거와 분리된 허구적 서사): 지문에서는 해석이 달라지는 이유가 ‘사실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not because the facts have changed)’ 우리의 가치가 변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사실적 증거를 기반으로 하되 그에 대한 해석이 달라짐을 의미하는 것이지, 역사가 ‘사실과 무관한 허구(fiction)’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오답입니다.
- ⑤ a cyclical journey destined to repeat its mistakes (실수를 반복할 운명인 순환적 여정): ‘역사는 반복된다’는 내용은 이 지문의 주제와는 무관합니다. 이 글은 ‘역사적 사건의 순환성(cyclical)’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연구하고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오답입니다.

34. ②

[지문 해석] 기술 혁신을 둘러싼 혼란 서사 중 하나는, 기술이 인류 사회를 미리 정해진 길로 끊임없이 밀어붙이는 자율적이고 멈출 수 없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종종 ‘기술 결정론’이라 불리는 이 관점은 기술을 사회 변화의 주된 동력으로, 인류를 수동적인 수용자로 여깁니다. 하지만 이 관점은 기술 발전의 방향을 조종하는 인간의 선택과 사회적 가치라는 복잡한 망을 편리하게 간과합니다. 예를 들어, 인쇄기는 혼자 힘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기존에 존재하던 종교적 반발, 정치적 야망, 그리고 성장하는 식자 계층의 합류에 의해 그 힘이 발휘된 도구였습니다. 기술은 외부에서 사회를 강타하는 운석이 아닙니다. 대신, 그것은 문화적, 역사적 맥락이라는 토양에서 자라는 씨앗에 더 가깝고, 그 최종 형태는 흡수하는 영양분—그리고 독소—에 의해 형성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기술이 그것을 만든 사회를 반영하는 거울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선지 해설]

- ① a society's progress is measured by its technological sophistication (사회의 발전은 기술적 정교함으로 측정된다): 이 글은 기술과 사회의 관계를 다루고 있을 뿐, 사회의 발전 척도에 대해서는 논하고 있지 않으므로 오답입니다.
- ② technology is a mirror reflecting the society that builds it (기술은 그것을 만든 사회를 반영하는 거울이다): 정답입니다. 지문에서는 기술이 사회라는 토양에서 자라며 그 사회의 ‘가치와 선택(nutrients and toxins)’에 의해 형성된다고 서술합니다. 이는 기술이 결국 그것을 만들어 낸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는 거울과 같다는 의미와 일치합니다.
- ③ innovations will solve humanity's most persistent problems (혁신은 인류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다): 이 글의 핵심 주제인 ‘기술과 사회의 상호작용’과는 전혀 관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므로 명백한 오답입니다.
- ④ the inherent nature of a technology dictates its use and impact (기술의 내재적 본질이 그 사용과 영향을 결정한다): 매력적인 오답입니다. 이 선지는 지문 초반에 소개된 ‘기술 결정론’의 정의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글의 전반부만 읽고 핵심을 파악하지 못했거나, 저자가 ‘반박’하는 내용을 정답으로 착각할 경우 선택하기 쉬운 함정입니다. 이 글은 이 주장이 틀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⑤ humans have become dependent on the tools they make (인간은 자신이 만든 도구에 의존하게 되었다): 지문의 주제(기술의 발전 과정에 사회가 미치는 영향)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므로 오답입니다.

36. ②

[지문 해석]

(주어진 글) 맛의 세계는 오랫동안 단맛, 신맛, 짠맛, 쓴맛이라는 네 가지 기본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되었다. 이 전통적인 관점은 수 세기 동안 요리사와 식품 과학자들에게 기본적인 틀을 제공했다.

(B) 하지만 이 오래된 믿음은 20세기 초에 도전을 받았다. 이케다 기쿠나에라는 이름의 한 일본인 화학자가 자신의 다시마 육수에서 기존 네 가지 범주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특한 감칠맛을 발견했다.

(A) 그는 이 다섯 번째 맛을 ‘우마미(umami)’라고 이름 붙였는데, 이는 일본어로 ‘기본 좋은 감칠맛’으로 번역된다. 그 발견은 숙성 치즈, 잘 익은 토마토, 그리고 고기와 같은 식품에서 발견되는 아미노산인 ‘glutamate’의 맛을 확인함으로써, 우리가 맛을 이해하는 데 새로운 차원을 더해 주었다.

(C) 처음에 이 개념은 서구 세계에서 회의적인 반응에 부딪혔다. 우마미가 과학적으로 인정받고 기존의 네 가지 맛과 함께 기본적인 맛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렸다.

[선지 해설]

② **정답**입니다. 주어진 글은 네 가지 맛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을 소개하며 끝납니다. (B)의 시작 부분에 나오는 ‘However, this long-held belief(하지만, 이 오래된 믿음은)’이 주어진 글의 ‘전통적인 관점’을 정확히 받아주며 글의 흐름을 전환합니다. 따라서 (B)가 가장 먼저 와야 합니다. 다음으로, (B)는 ‘Kikunae Ikeda’라는 화학자가 새로운 맛을 발견했다는 내용입니다. (A)의 첫 문장에 나오는 대명사 ‘He’는 바로 앞에서 언급된 ‘Kikunae Ikeda’를 가리킵니다. 그가 발견한 맛에 ‘umami’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내용이므로, (B)에서 새로운 맛을 발견한 직후에 그 맛의 이름을 붙이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따라서 (B) → (A)의 순서가 논리적입니다. (A)에서 ‘umami’라는 개념이 소개되었습니다. (C)의 ‘this concept(이 개념)’은 (A)에서 소개된 ‘umami’를 가리킵니다. ‘umami’가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을 겪다가 결국 인정받았다는 내용으로, 글의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A) → (C)의 순서로 글이 이어져야 논리적입니다.

③ **매력적인 오답**입니다. (B)에서 새로운 맛을 발견한 후, (C)에서 그 ‘개념(concept)’이 회의론에 부딪혔다는 흐름도 언뜻 자연스러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C)에서는 ‘umami’라는 구체적인 명칭을 사용하는데, 이 이름은 (A)에서 처음으로 언급됩니다. 따라서 이름이 붙여지기도 전에 그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되므로, (A)가 (C)보다 먼저 와야 합니다.

37. ④

[지문 해석]

(주어진 글)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은 개인들이 독립적이고 합리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함으로써, 공유된 한정된 자원을 고갈시켜 전체 집단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고전적인 경제적, 사회적 딜레마이다.

(C) 모든 지역 목축업자에게 개방된 목초지를 생각해 보자. 각 목축업자는 자신의 가축 떼에 동물 한 마리를 추가하는 것이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이익을 제공한다는 것을 인지한다. 반면에 그 동물이 풀을 뜯는 비용은 모든 목축업자에게 분산되므로, 개별 목축업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무시할 만해 보인다.

(A) 그러나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개별 행동들의 누적 효과는 파멸적이다. 모든 목축업자가 동일한 완벽한 논리를 따름에 따라, 동물의 총 개체 수는 곧 목초지의 수용 능력을 초과하게 되고, 이는 목초지의 악화와 궁극적인 파괴로 이어진다.

(B) 이 결과가 바로 비극이다: 개인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추구한 것이 집단적 손실로 이어지고, 그 자원은 붕괴에 기여한 바로 그 개인들을 포함한 모두에게 쓸모없게 되어버린다. 이 딜레마는 개인의 합리성과 집단의 합리성 사이의 충돌을 명확히 보여준다.

[선지 해설]

④ **정답**입니다. 주어진 글은 ‘공유지의 비극’에 대한 추상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정의가 등장한 후에는 이 개념을 구체화하여 설명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전개입니다. (C)는 목초지의 예시를 통해 이 개념을 구체화하여 설명하므로, 주어진 글 바로 다음에 오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C)는 각 개인이 자신의 행동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무시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원인을 설명합니다. 한편, (A)는 ‘그러나(however)’를 사용해 이러한 개별 행동이 쌓였을 때의 누적 효과(cumulative effect)가 파멸적이라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원인 설명 뒤에 그 결과를 보여주는 (C) → (A)의 순서가 논리적입니다. (B)의 첫 문장은 ‘이 결과가(This outcome)’으로 시작하는데, 여기서 ‘결과’는 (A)에서 제시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A) → (B)의 순서로 글이 이어져야 논리적입니다.

⑤ **매력적인 오답**입니다. (C)에서 설명한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B)의 ‘개인 이익의 합리적 추구’라는 말과 바로 연결된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B)의 ‘이 결과가(This outcome)’라는 표현이 가리킬 구체적인 ‘결과’가 (C)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C)는 목초지의 예시를 통해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의 원인만 설명할 뿐, 실질적인 결과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목초지의 파괴’라는 명시적인 결과는 (A)의 마지막에 등장하므로, (B)가 (A) 뒤에 와야 논리적입니다.

38. ③

[지문 해석] 새로운 프로젝트나 시도의 초기 단계에서, 개인들은 종종 강력한 동기 부여와 열정의 급증을 경험한다. (①) 이 시기는 명확한 비전, 야심 찬 목표, 그리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강한 믿음을 특징으로 한다. (②) 과업의 새로움과 새로운 영역을 탐험하는 흥분은 영감의 강력한 카테일을 만들어내어, 높은 수준의 생산성과 창의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초기의 폭발적인 에너지는 기만적이다. (③) 그것은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인 헌신보다는 새로운 것에 대한 스틸에 의해 더 많이 동력을 얻는다. (④)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피할 수 없는 장애물과 차질이 발생하면서, 이 감정적 고양 상태는 약해지기 시작한다. (⑤) 그러므로 성공의 진정한 시험대는 초반 동기 부여의 강도가 아니라, 그 첫 흥분의 물결이 지나갔을 때 계속할 수 있는 회복력과 인내심이다.

[선지 해설]

- ①, ②의 주변 문장에서는 프로젝트 초기의 강력한 동기 부여와 열정, 높은 생산성과 창의성 등 긍정적인 측면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직 'However'로 시작하는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는 이른 위치입니다.
- ③의 앞 문장까지는 초기 에너지의 긍정적인 면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③ 바로 뒤 문장은 '그것은 지속 가능한 헌신보다는 새로운 것에 대한 스틸에 의해 동력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문장은 초기 에너지가 가진 한계, 즉 '기만적인(deceptive)' 이유를 정확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긍정적 설명이 끝나고, 그 문제점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③ 위치가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 ④, ⑤뒤에서는 감정이 약해지기 시작한다는 내용, 진정한 성공을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며 글을 마무리합니다. 이는 모두 초기 에너지가 '기만적인(deceptive)'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에 이어지는 내용이므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는 너무 늦은 위치입니다.

39. ③

[지문 해석] 전통적인 합리적 선택 모델은 종종 이상적인 의사 결정자를 최적의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변수를 따져보는 복잡한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가정한다. (①) 이 관점은 의사 결정자의 인지 처리 능력이 무한하다고 여겨지는 일종의 제한 없는 합리성을 옹호한다. (②) 그러나 생태학적 합리성의 지지자들은 이 모델이 시간은 제한적이고 정보는 종종 불완전하거나 모호한 현실 세계에는 잘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불확실한 환경에서는, 모든 정보를 따져보려는 복잡한 전략이 관련 없는 데이터라는 소음에 의해 마비될 수 있다. (③) 그들은 인지 전략의 유효성이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속성이 아니라, 그것이 환경의 구조와 얼마나 잘 맞는가에 달려있다고 제안한다. (④) 의도적으로 정보를 무시하는 '간단한 휴리스틱', 즉 경험 법칙이 이러한 맥락에서는 실제로 더 나은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⑤) 가장 결정적인 단서에만 집중함으로써, 휴리스틱은 효율적일 수 있으며, 자원 집약적인 분석 과정을 능가할 수 있다.

[선지 해설]

- ①, ②의 앞까지는 '전통적인 합리적 선택 모델'을 설명합니다. 의사 결정자가 마치 무한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모든 가능한 변수를 고려하여 복잡한 계산을 수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아직 이 모델의 문제점이나 불확실한 환경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므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는 이른 위치입니다.
- ③의 바로 앞 문장(②의 바로 뒤 문장)은 전통적 모델이 현실 세계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현실 세계를 시간은 제한적이고 정보는 종종 불완전하거나 모호한 곳으로 정의합니다. 이것은 주어진 문장의 '그러한 불확실한 환경(In such uncertain environments)'이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③ 위치가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 ④, ⑤의 주변 문장에서는 '간단한 휴리스틱'이라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즉, 글의 논점이 이미 전통적 모델의 문제점에서 그 해결책으로 넘어간 단계입니다. 따라서 '복잡한 전략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는 너무 늦은 위치입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